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 해석의 두 관점 (막 12:1-12)

-알레고리와 사회적 상황-

임진수*

들어가는 말

예수의 비유 해석은 주석 방법론(Exegese)의 접근 방법에 따르면 신약성서의 양식사(Formgeschichte)라는 연구 영역에 해당한다. 양식사 연구의 초점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문헌의 형식들을 탐구하므로 그 형식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학적인 관점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알아내고자 노력한다.¹⁾ 비유와 관련하여 주석가들의 논쟁은 일차적으로 예수의 비유가 예수 자신의 말(ipsissima verba)로 역사적인 예수에게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주석가들은 예수의 비유가 기독교어나 교회론적인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역사적인 예수에게서 그 기원을 찾기보다는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가미된 교회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런 두 가지 논쟁에도 예수의 비유에 대한 연구는 그 기원이 예수에게 소급되는 어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예수의 비유 안에는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 세계의 삶의 정황들이 들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사상을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²⁾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H. Conzelmann and A.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Tübingen: J. C. B. Mohr, 1995), 85, 103.

2) 버나드 브랜든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일산: 한국기독교연구소,

비유는 예수의 어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비유는 이미지와 말하는 내용을 비교 형식(Gleichnis)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지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청중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스스로 깨닫고 결정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비유는 설명된 이미지와 그것을 통해서 의도된 내용의 한 가지 비교점(tertium comparationis)을 가지고 한 가지 의도에 집중한다.³⁾ 둘째, 비유는 이야기 형식을 가진 형태로 전개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줄거리를 가지고 전개되는 우화(Parabel)의 형식을 가지며 누가복음 15:11-32의 ‘잃었던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우화 형식의 비유도 첫 번째 언급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비교점을 강조한다.⁴⁾ 셋째, 넓은 의미에서 비유의 다른 형식은 예화 형식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누가복음 16:1-8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와 10:30-35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로써 전자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행동을 강조하고, 후자는 참된 이웃을 위한 모범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 그러나 연구에서 ‘예화가 원래 비유의 고유의 범주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된다.⁵⁾ 마지막으로 비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알레고리(allegory)다. 알레고리는 지금까지 말한 비유의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알레고리는 원래의 이야기 안에 은유(metaphor)를 첨가함으로써 원래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관점을 다양한 비교의 관점을 가진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⁶⁾

2006), 21, 32는 예수 세미나에서 복음서들 안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가 그의 진정한 어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3) Conzelmann and Lindemann, *Arbeitsbuch*, 103.

4) Ibid., 103; A. Jülicher, *Die Gleichnisreden Jes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이 책은 윌리허가 이 연구의 제1권을 1899년 처음 출판하고 그것을 1910년 다시 개정판을 낸 것과 1898년 제2권 *Anslegung der "Gleichnis"reden der drei ersten Evangelien*을 1910년 독일 J. C. B Mohr 출판사가 출판한 것을 허락받아 합본으로 다시 인쇄한 것이다. 책의 2부 334쪽을 참조하라.

5) Conzelmann and Lindemann, *Arbeitsbuch*, 103 이하.

이렇게 비유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가운데 마지막에 언급한 ‘알레고리’ 해석과 비유가 탄생했던 비유의 원래 정황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마가복음 12:1-12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아직도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마가복음 12:1-12 해석의 알레고리적인 지평과 사회학적인 지평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알레고리의 개념

A. 윌리허(Jülicher)의 비유에 대한 연구는 그의 책 ‘예수의 비유 설교’(Die Gleichnisreden Jesu)로 집대성 되어 나타났고,⁷⁾ 이것을 계기로 그 이전까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들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던 전통이 종식되었다. 이후 비유 연구는 그것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을 밝히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상황이나 문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마가복음 12:1-12의 본문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⁸⁾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알레고리에 대한 개념을 논의한 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6) Conzelmann and Lindemann, *Arbeitsbuch*, 104. 알레고리가 한편으로는 은유(metaphor)나 환유(metonymy: 어떤 낱말 대신에 그것을 연상시키는 다른 낱말을 쓰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된다는 주장은 김덕기, 『예수 비유의 새로운 지평』(서울: 다산글방, 2001), 306을 보라.

7) Jülicher, *Gleichnisreden*, 386, 405 이하.

8) 우리가 다루려는 마가복음 12:1-12를 알레고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입장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지는 입장은 크게 윌리허, J. 예레미아스(Jeremias), M. 헝겔(Hengel)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 본문이 알레고리라는 주장은 윌리허의 입장이고, 이 본문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예레미아스와 헝겔의 입장이다. Conzelmann and Lindemann, *Arbeitsbuch*, 105를 참조하라.

살펴보고자 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유의 기본적인 이해는 말하려는 핵심과 그것을 표현하는 이미지와 비교하는 대응 관계다. 비유에서 말하려는 핵심이 A라면 그것을 표현하는 이미지는 A'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의 핵심은 이미지를 제시하여 원래의 의도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알레고리는 저자나 화자가 말하고자 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상관없이 다른 내용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즉, 어떤 텍스트나 문장은 화자가 말하고자 했던 A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레고리는 원래의 A라는 텍스트를 만들어 낸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자가 A를 B나 C나 D처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⁹⁾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해석자의 관점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¹⁰⁾ 이처럼 알레고리는 '다른',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ἄλλος와 '인상적으로 말하다' 혹은 '다양하게 말하다'와 '공개적으로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 ἀγορεύω의 합성어다.¹¹⁾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원래의 언어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투영하여 다른 의미를 가미하여 원래의 의미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나 저자의 의도를 알레고리로 사용하여 다르게 말하는 한 가지 사례는 갈라디아서 4:21-31에 나온다<표 1>.

바울의 이 진술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사용한 알레고리는 갈라디아서 4:21-31의 문맥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에게 다른 신학적인 의미를 첨가하여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일어나게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표 2>.¹²⁾

9) 김덕기, 『예수 비유의 새로운 지평』, 292에서 이것을 “억압된 은유”라고 부른다.

10) H. D. 베즈, 『갈라디아서』,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495.

11) <http://de.wikipedia.org/wiki/Allegorie>; H. D. 베즈, 『갈라디아서』, 495.

12) H. D. 베즈, 『갈라디아서』, 500을 비교하라.

<표 1>

<p>24 이것은 비유니(알레고리로 말한 것-필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p>	<p>24 ἄτινά ἐστιν ἀλληγορούμενα· αὗται γάρ εἰσιν δύο διαθήκαι, μία μὲν ἀπὸ ὄρους Σινᾶ εἰς δουλείαν γεννώσα, ἥτις ἐστὶν Ἀγάρ. 25 τὸ δὲ Ἀγάρ Σινᾶ ὄρος ἐστὶν ἐν τῇ 'Αραβίᾳ· συστοιχεῖ δὲ τῇ νῦν Ἱερουσαλήμ, δουλεύει γὰρ μετὰ τῶν τέκνων αὐτῆς. 26 ἡ δὲ ἄνω Ἱερουσαλὴ Χοιζελαμμὶ ἐλευθέρᾳ ἐστίν, ἥτις ἐστὶν μήτηρ ἡμῶν·</p>
---	---

<표 2>

여자들 ⇒ 두 언약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처 하갈
(다른 여인-사라) ⇒ 위에 있는 예루살렘 ⇒ 자유자 ⇒ 우리의 어머니 ⇒ 표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의미한다-필자	한 여인-하갈 ⇒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의 하갈 ⇒ 그 자녀들은 지금 종노릇 한다 ⇒ 종을 낳은 여인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는 위의 본보기는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예수의 가르침이나 당시의 유대교 문헌에서도 익숙한 진술 방법이었다.¹³⁾ 이런 정황에도 윌리허 이후 촉발된 비유의 알레고리 논쟁은 그것이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¹⁴⁾ 그러므로 다음에는 마가복음 12:1-12의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 해석의 논쟁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3) Ibid., 495.

14) 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C. H. 다드(Dodd)였다. 그의 책 *The Parable of the Kingdom*, rev.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을 참조하라.

2. 연구의 정황

우리가 다루는 마가복음 12:1-12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경작과 관련된 소작료를 받고자 그의 종들을 여러 번¹⁵⁾ 보내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1-5절).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들을 보낸 일이 모두 허사가 되자 결국에는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죽음을 당해 포도원 밖으로 던져져 버렸고(6-8절), 결국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개입하여 악을 행한 농부들을 파멸시켜 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다(9절).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마가복음 12:1-12의 이야기꾼이 말하는 죽음을 당한 아들이 예수의 입장에서 ‘자의식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산물로서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비유 안에서 “그 아들”을 예수 자신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 비유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알레고리가 틀림없다. 그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은 ‘농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언자들로 해석되는 ‘종’들을 보낸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가 예수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 자신의 것이 아닌 초대 기독교 안에서 형성된 기독교론적인 알레고리가 된다.¹⁶⁾

이런 입장과 반대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비유의 틀 안에서 아들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이 이야기에 들어 있는 5절의 진술은 알레고리로서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15) 마가복음은 한 종-다른 종-다른 종-많은 종-사랑하는 아들의 순서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한 종, 다른 종, 세 번째 종, 사랑하는 아들의 순서로,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의 종들-다른 종들-그의 아들의 순서로 되어 있다.

16) Jülicher, *Gleichnisreden*, 385-406.

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예수의 이 비유는 갈릴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갈릴리의 대농장들의 소유자가 외국인 지주들이었고, 그 결과 소출을 둘러싼 소작료 분쟁에서 그 지역 주민들 소요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외국인 지주들의 횡포에 저항했다는 주장이다.¹⁷⁾ 이런 주장과 함께 나그함마디 문헌(NHC)의 발견으로 알려진 도마복음은 비유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¹⁸⁾ 도마복음의 어록 65와 66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1-12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가능성과 사회적인 해석의 두 관점을 재고해 보도록 자극한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논의는 이 본문 해석의 두 관점을 다루고자 한다.

3.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

3.1.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가능성

월리허 이후 마가복음 12:1-12의 비유는 알레고리로 규정되어 왔다. 월리허는 이 비유가 원래는 예수의 비유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가 예수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레고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¹⁹⁾ 이후 월리허의 주장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2:1-12의 이야

17)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70 이하를 참조하라.

18) 버나드 브랜든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22를 참조하라.

19) Jülicher, *Gleichnisreden*, 406에서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초대 기독교의 산물”(Produkt urchristlicher Theologie)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 본문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한다. “Das Urchristentum, nicht Jesus selber scheint Mc 12 1-11 das Wort zu führen”(이 비유는 예수 자신이 막 12:1-11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초대 기독교의 것이다. 루돌프 볼트만, 『공관 복음서 전승사』,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226과 각주 34를 참조하라.

기는 알레고리라는 입장과 알레고리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양분된다.²⁰⁾ 윌리허와 다른 입장은 이 이야기는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예수의 비유라는 주장이다. 즉, 이 비유는 예수가 살던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근원적으로 알레고리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심판의 대상은 예수의 적들이나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²¹⁾ 이런 주장을 토대로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가 처음에는 알레고리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알레고리화 되어서 복잡해졌다고 본다. 이런 가정을 할 경우 공관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2:1-12와 평행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단순한 구조를 기본으로 할 때 누가복음 → 마가복음 → 마태복음 순서로 오래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평행 본문을 가지고 다루고자 할 때는 마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오래된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 도마복음 65에 나오는 마가복음 12:1-12의 평행 본문을 제시한다.²²⁾ 마가복음 12:1-12와 평행 본문이 되는 도마복음서의 어록 65:1-7과 66:1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어록 65 (1)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포도원을 샀다. 그는 그것을 몇 사람 농부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고자 했고 그는 그들로부터 포도원 열매를 받아야 했다. (2) 그는 그의 종을 보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은 그에게 포도원 열매를 주어야 했다. (3) 그들은 그의 종을 붙잡고 그를 때렸으며 그를 거의 죽게 했다. 그 종은 (되돌아)가서 그의 주인에게 말했다. (4) 그 주인이 말했다. 아마 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다. (5) 그는 다른 종을 보냈다. 그리고

20) E. Linnemann, *Gleichnisse Jesus. Einführung und Ausleg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18.

21) 예레미야스, 『예수의 비유』, 68, 72, 161 이하.

22) C. S. Mann, *Mark, AncB*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86), 461.

그 농부들은 처음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그도 때렸다. (6) 그때 그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아마 그들이 나의 아들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줄 것이다.” (7) 하지만 그 농부들은 그가 그 포도원의 상속자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죽였다.

어록 66 (1) 귀 있는 자는 들으라.²³⁾

나그함마디 문서인 도마복음의 발견은 공관 복음서 연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태와 누가의 공통 자료인 예수의 어록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도마복음의 예수의 어록이 공관 복음서의 예수의 어록인 Q보다도 더 오래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²⁴⁾ 그런 관점으로 위에서 제시된 도마복음의 어록 65를 먼저 읽고 마가복음 12:1-12를 관찰하면, 마가의 텍스트는 예수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유대 교와의 논쟁을 위해서 도마복음처럼 원래의 이야기에 교회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가한 2차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2:1-12의 평행 본문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은 종을 보내는 이야기를 단순화하면서 알레고리를 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⁵⁾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누가복음 기록자의 작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승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²⁶⁾

이처럼 우리는 예레미아스의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도마복음과 누

23) http://www.gnosis.org/naghamm/gth_par_rob.htm 사이트의 Patterson and Robinson Translation 참조.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90), 93을 비교하라.

24) 게르트 타이센,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5), 76-82를 참조하고 80쪽의 각주 59를 참조하라. 여기서는 도마복음이 공관 복음서들 안에 나오는 이 비유들보다 오래된 것이라는 가정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도마복음이 공관 복음서들보다 이후의 기록이라는 주장은 A. Lindemann, “Zur Gleinisinterpretation im Thomas-Evangelium,” ZNW 71 (1980), 214-243을 참조하라.

25)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66.

26) Ibid., 66 이하.

가복음이 마가복음의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²⁷⁾ 그리고 이렇게 근원적인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알레고리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0:9-19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특징을 서술해야만 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는 외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도마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가 같은 전승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경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도마복음-누가복음>, <마가복음-마태복음>이라는 두 개의 전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방금 말한 두 묶음의 전승은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포도원 주인을 언급하고 그가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었다는 사실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그러나 <마가복음-마태복음>의 전승은 주인으로 대변되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산울타리”(φραγμός), “즙 짜는 틀”(ὑπολήμιον), “망대”(πύργος)와 같은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대규모의 포도원 경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마가와 마태가 제시하는 포도원, 울타리, 망대, 포도주 짜는 틀,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2:1-12을 중심으로 한 본문에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본문에 대한 이런 접근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 위한 두 가지 해석학적인 관점이 열리게 된다. 아래의 짝막한 비교는 알레고리의 단초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표 3>.

27)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J. S. Kloppenborg, “Egyptian Viticultural Practice and the Citation of Isa 5:1-7 in Mark 12:1-9,” *Novum Testamentum* 44 (2002), 135.

<표 3>

도마복음 65:128)	누가복음 20:9	마가복음 12:1	마태복음 21:33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포도원을 샀다. 그는 그것을 몇 사람 농부에게 주었고,	ἄνθρωπός [τις] ἐφύτευεν ἀμπελώνα καὶ ἐξέδετο αὐτὸν γεωργοῖς καὶ ἀπεδήμησεν χρόνους ἰκανούς.	ἀμπελώνα ἄνθρωπος ἐφύτευσεν καὶ περιέθηκεν φραγμὸν καὶ ὤρυξεν ὑπολήμιον καὶ ὤκοδόμησεν πύργον καὶ ἐξέδετο αὐτὸν γεωργοῖς καὶ ἀπεδήμησεν.	ἄνθρωπος ἦν οἰκὸ δεσπότης ὅστις ἐφύτευσεν ἀμπελώνα καὶ φραγμὸν αὐτῷ περιέθηκεν καὶ ὤρυξεν ἐν ἐν αὐτῷ ληνὸν καὶ ὤκοδόμησεν πύργον καὶ ἐξέδετο αὐτὸν γεωργοῖς καὶ ἀπεδήμησεν.

우리는 이런 대조표를 통해서 위에서 주장한 <도마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라는 전승의 연관 관계가 드러난다. 특히 위의 대조표에서 네 복음서의 굵은 글씨로 돋보이게 만들어 놓은 단어들은 이 비유를 만들어낸 기본적인 골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밑줄 친 부분은 이 자료의 기본적인 전승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의해서 확대되고 더욱 알레고리화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한 번역본과 마가복음의 자료를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려진다.

1) 인물들

도마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고리대금업자) ← 2명의 종들과 아들 → 농부들
 마가복음은 인물에 대한 설정을 다르게 제시한다.
- * 어떤 사람 ← 한 종, 다른 종, 또 다른 종, 그 외 많은 종들, 사랑

28) H. Greeven, *Synopse der drei ersten Evangelien mit Beigabe der johanneischen Paravellen* (Tübingen: J. C. B. Mohr, 1981), 202. 그레벤(H. Greeven)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곱타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들은 현재 다루고 있는 비유와 도마복음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는 아들→ 농부들

위의 단순 비교는 마가복음에서의 종들에 대한 서술이 점점 더 상승적인 구조로 발전하여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2) 다음의 비교는 도마복음과 마가복음의 포도원에 대한 비교다.

도마복음의 포도원에 대한 언급은 아주 단순하게 제시된다.

* 고리대금업자가 포도원을 샀다.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즈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소작을) 주고 타국에 갔다.

3) 두 본문의 공통점은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4) 그러나 도마복음은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마가복음은 도마복음에 비해서 아들이 죽은 이후에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언급으로 끝난다.

이것을 다시 도마복음의 것과 누가복음의 것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이 도마복음의 것보다 더 추가한 내용은 누가복음 20:15 중반부터의 이야기다. 이것은 도마복음의 내용보다 많이 확장된 것으로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의 틀을 따라간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도마복음처럼 이 비유를 원래의 형태로 알고 있었지만, 기록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15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19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ἄρχιερεῖς)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비판 대상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막 11:27).

이런 비교는 마가복음이 알레고리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10-11절의 건축자의 버린 돌(λίθον ὃν ἀπεδοκίμασαν οἱ οἰκοδομοῦντες)이 아들이며 예수라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주라는 기독교론의 관점에서’(παρὰ κυρίου) 해석되고 있다.²⁹⁾ 따라서 이 본문의 의도는 예수의 적들을 겨냥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11:27에서 시작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πρεσβύτεροι)이 예수를 거부하는 중심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기록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투쟁 비유).³⁰⁾ 그리고 한결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결국 그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므로 11:15-19에 나오는 예수의 성전 정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 비유는 이 자료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이야기를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므로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가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 참되고 진정한 유대교의 성전이 되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ὁ οἶκός μου οἶκος προσευχῆς κληθήσεται πᾶσιν τοῖς ἔθνεσιν)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12:9의 “다른 사람들에게”(ἄλλοις)라는 진술을 통해서 유대교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맥락을 지시한다.³¹⁾

그리고 마가복음 12:1-12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능한 요소는 포도원 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공관 복음서들 가운데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차이는 이 비유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증이 된다<표 4>.

위의 비교는 마가복음이 서술하는 종들의 파송에 대한 언급이 마태 복음의 것과 누가복음의 것을 비교해 보면 갈등이 고조되는 서술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마가복음이 1절에서 제시한 포도원 주인의 경작과 설비 구축과 소작에 대한 문제로 소작인 농부들과의 갈등을

29) J. Gni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8,27-16,20), EKK II/2 (Benziger/Neukirchner-Vluyn: Neukirchner Verlag, 1989), 149.

30) Jülicher, *Gleichnisreden*, 386, 405 이하.

31) K. R. Iverson, “Jews, Gentiles, and the Kingdom of God: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in Narrative Perspective (Mark 12:1-12),” *Biblical Interpretation* 20 (2012), 305-335.

<표 4>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2절: δούλου(한 종) 4절: ἄλλον δούλου(다른 종) 5절: ἄλλον ... πολλούς ἄλλους (다른 종...많은 다른 종들) 6절: υἷον ἀγαπητόν (사랑하는 아들)	34절: τοὺς δούλους αὐτοῦ (그의 종들) 36절: ἄλλους δούλους (다른 종들) 37절: τὸν υἷον αὐτοῦ (그의 아들)	10절: δούλου(한 종) 11절: ἕτερον δούλου(다른 종) 12절: τρίτου(세 번째 종) 13절: τὸν υἷον μου τὸν ἀγαπῆ τόν(나의 사랑하는 아들)

의도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알레고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작성된 본문과 도마복음에서 작성된 내용의 비교를 통해서도 마가복음의 의도성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종들의 파전에 대한 세 복음서들의 비교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것은 도마복음의 판본과 유사하지만, 20:15 이하의 강조점은 도마복음의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세 복음서의 비교를 통해서 포도원 이야기에 대한 알레고리는 마가복음이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자신들의 신학적인 의도에 맞도록 포도원에 대한 전승을 수정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수용하면서도 변용하는 과정을 보여 주며, 누가복음의 경우도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신학에 맞게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³²⁾ 따라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 도마복음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가 공관 복음서 가운데 나타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비유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레고리로 만든 것은 마가복음이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것과 비교해서 알레고리적인 의도와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는 마가복음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는 원래는 도마복음의 어록 65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 가지 비교점을 가졌던 알레고리가 가미되지 않았던 '비유'였다고 말할 수 있다.³³⁾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나 예수는

32)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96.

그것을 말하고 전달하던 당시의 상황을 위하여 그 당시 널리 알려진 포도원 이야기 전승에 구약의 이사야 본문을 5:2와 시편 118:22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학적인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원래 비유였던 자료를 알레고리로 만드는 한 가지 구체적인 증거는 4:1-9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4:14-20에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³⁴⁾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안에도 마가복음 기록자나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알레고리적인 의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주석가들의 결론처럼 마가복음 12:1-12의 알레고리는 ‘포도원 → 이스라엘’, ‘종들 → 예언자들’, ‘농부들 →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아들 → 예수(주)’, ‘건축자들의 버린 돌 → 성전의 머릿돌’이라는 일련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예수가 곧 성전의 초석이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구약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의 선포를 거부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이미 마가복음 11:15-19의 성전 정화의 관련성이다. 마가복음의 성전 정화에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가 성전을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οἶκος μου οἶκος προσευχῆς κληθήσεται πᾶσιν τοῖς ἔθνεσιν)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승되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더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³⁵⁾

이런 논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예수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윌리허의 주장처럼 초대 기독교의 알레고리화의 산물인지 다루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알레고리로

33) A. Lindemann, “Zur Gleinisinterpretation,” 234-238. 린데만은 도마복음의 이 비유가 탈(脫)알레고리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34) Jülicher, *Gleichnisreden*, 536.

35) Iverson, “Jews, Gentiles, and the Kingdom of God,” 335.

보는 입장은 이미 위에서 진술한 것처럼 이 비유는 기독교인 진술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의 자신의 말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비유로서 예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암시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기록자나 본문에서 비유를 말하는 예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을 전개하는 주제가 된다.

다시 정리하면 이 비유는 도마복음을 포함하여 공관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비유이며, 신약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 비유가 어떻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비유에 대한 연구가 더 복잡해진 것은 나그함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헌이었던 도마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더 오래된 것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의 비유가 Q 자료처럼 어록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학계의 논의의 쟁점은 도마복음의 실제적인 기록 연대는 공관 복음서보다 나중이며, 이런 사실 때문에 도마복음의 작성 연대도 마가복음보다 이후라는 주장도 나온다.³⁶⁾ 필자는 도마복음이 후대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나 어록 안에는 이 비유가 알레고리화 되기 이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는 알레고리로 발전하기 이전에 비유로써 어떤 사실(fact)을 말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즉, 마가복음 4:1-9의 ‘씨 뿌리는 비유’가 처음에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그것의 기본적인 사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농부의 법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4:9를 참조하라). 그러나 이 비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유의 원래 의도를 마가복음 4:14-20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레고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36) Lindemann, “Zur ‘Gleichnis’-interpretation,” 236. 린데만은 도마복음의 어록 65번이 오히려 이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 있다.³⁷⁾ 이런 사례는 <마가복음-마태복음>의 유사성과 <도마복음-누가복음>의 유사성처럼 유사하거나 같은 전승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용되어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마가복음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는 도마복음과 다르게 칠십인역(LXX) 이사야서 5:2를 구약의 성서 전승을 강조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마가복음이 도마복음보다 더 의도적으로 묘사하는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예수의 사역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활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알레고리적인 기능을 제공했다(12:2, 4, 5, 6). 즉,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예언자들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에 대한 배척으로 하나님의 전권 대리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포도원 주인을 무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발한다.

물론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ὁ υἱό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이라는 사실을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부터 분명하게 제시하고(1:11), 이것이 다시 예수의 변형 사회와 연결되어(9:7)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 “사랑하는 아들”(υἱός ἀγαπητός), “나의 아들”(υἱός μου)로 다시 강조되어 내적인 통일성을 이룬다.³⁸⁾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을 통해서 언급되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ἀληθῶς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υἱὸς θεοῦ ἦν)는 진술로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의도는 예수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전권 대사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 118:22의 환유(換喻)를 통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다윗의 전승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배척받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고, 그 머릿돌

37) M. Black, “Die Gleichnisse als Allegorien,” W. Harnisch ed., *Gleichnisse Jes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2), 266.

38)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146.

이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다.³⁹⁾ 따라서 마가복음 12:1-12의 알레고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전통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새롭게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는 예수의 죽음이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유대교의 극복이라는 신학적인 변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2. 사회학적인 해석의 가능성

우리가 다루는 비유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알레고리적인 가능성과 더불어 당시 세계의 실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C. H. 다드(Dodd)였다. 그는 이 비유가 알레고리로 해석되기 이전에 그레코-로만(Greco-Roman) 세계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것은 마가복음 12:1-12의 포도원을 사고 경작하며 구체적인 부대시설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당시의 대토지 소유제를 중심으로 한 부재지주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방금 언급한 당시의 포도 농사와 관련된 부재지주와 대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작농과 토지 주인의 갈등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었다.⁴¹⁾ 그 연구들은 갈릴리 지역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에 그의 뒤를 잇는 왕들이나 귀족들의 소유가 되어 그곳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이어지고 있었

39) Ibid., 148.

40) Conzelmann and Lindemann, *Arbeitsbuch*, 105.

41) A. Alt, "Die Stätten des Wirkens Jesu in Galiläa," *ZDPV* 68 (1949), 67 이하.

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⁴²⁾

우리의 비유와 관련하여 이런 연구 방법을 적용시킨 사람은 M. 행엘(Hengel)이다.⁴³⁾ 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배경을 기원전 280년 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재무 장관 아폴로니우스(Apollonius)의 대리인이었던 제논(Zenon)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면서 남긴 기록을 통해서 재구성한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율리히의 비유 연구와 다드의 연구가 대척점에서 있음을 지적한다.⁴⁴⁾ 그는 “그것의 주요 노선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것이고 모든 면에서 실제적”(in its main lines natural and realistic in every way)이라는 다드의 입장을 지지한다.⁴⁵⁾ 그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제논이 남겼던 파피루스(Papyrus)의 내용에 주목하며 그것을 다시 랍비들의 문헌에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갈릴리 지역의 실제적인 포도 농사의 상황들을 추적해간다. 행엘의 판단에 따르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재무 장관이었던 아폴로니우스가 자신의 대리인 제논을 파견한 것은 요르단이나 갈릴리 지역에 있던 왕의 소유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관리하려는 일종의 시찰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을 받은 대리인 제논은 요르단과 갈릴리를 경유하여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왕의 토지에서 일어나는 경작 여부와 소출을 조사했고, 그가 남긴 문헌들은 그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행엘은 제논이 남긴 자료들 중에서 특히 갈릴리 지역의 벧 아낀(Beth Anath) 지역에 대한 보도를 주목하는데, 그것은 이 자료가 우리가 다루는 비유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42) 예레미야스, 『예수의 비유』, 70의 각주 3을 참조하라.

43) M. Hengel, “Das Gleichnis von den Weingärtnern Mc 12:1-12 im Lichte der Zenon papyri und der rabbinischen Gleichnisse,” *ZNW* 59 (1968), 1-39.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비유를 사회학적으로 다루는 한국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유지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와 역사적 예수의 처형 이유. 마가복음 12:1-12,” 구제홍, 김선정 외, 『예수의 비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17-136.

44) Hengel, “Gleichnis,” 1.

45) Hengel, “Gleichnis,” 3에서 재인용; Dodd, *Parable*, 96-97.

그러나 나는 벨 아날에 이르러 멜라스(Melas, 항시 있었던 재무 장관의 대리인)에게 가자마자, 농장들과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방문했다. 나에게 그는 그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처럼 보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도나무는 80,000 그루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통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주 공간을 넉넉하게 세웠다. 그러나 그는 나로 하여금 포도주를 시음하게 했는데, 나는 어떤 것이 (에게 해에 있는 섬) 키오스(코스)의 포도주인지 그 지역(벨 아날)에서 자란 포도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⁴⁶⁾

헝겔이 번역한 제논 파피루스의 자료는 이미 기원전 280년경에 갈릴리 지역에 포도원 농사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며, 위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 농사를 위한 부대시설과 그곳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1-12의 전체적인 서술과 매우 근접하며, 그 배후에는 이 농장의 소유주가 그곳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통치자나 관리들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왕의 재무 장관 아폴로니우스가 제논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은 갈릴리 원주민들과의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 자료 안에는 아폴로니우스 대리인이었던 제논이 중재자가 되어서 갈릴리 농부들과의 협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은 농부들이 대리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농부들에게 부과된 수확물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품목들은 포도주, 무화과, 곡물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 중에서 포도주와 관련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폴로니우스는 제논을 파견했고, 제논은 갈릴리 벨 아날에 거주하며 그 일을 감독하던 멜라스와 갈릴리 농부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⁴⁷⁾

46) Hengel, "Gleichnis," 13에서 헝겔이 제논의 그리스어 본문을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옮겼다.

47) Hengel, "Gleichnis," 14.

이처럼 행엘의 분석은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이후 그의 후계자들의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권력의 긴장 관계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갈릴리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정황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1-12의 정황과 유비(analogy)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⁴⁸⁾

이미 많은 주석가들이 분석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2:1에 대한 분석은 이사야서 5:2(LXX)를 반영하고 있다.⁴⁹⁾ 그리고 앞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누가복음과 도마복음의 어록 65는 마가복음 12:1에 나오는 진술들을 생략하고 있다.⁵⁰⁾ 바로 이런 차이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2:1에 나오는 칠십인역을 반영하는 것임에도 예수의 말로 되어 있는 구약의 암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가복음 12:1 이하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2:1의 이사야에 대한 인용 내지는 암시가 이미 랍비들의 문헌들을 통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시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⁵¹⁾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들을 성급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2:1에서 칠십인역 이사야서 5:2를 암시한다는 것은 이미 당시의 많은 독자들이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⁵²⁾ 따라서 율리히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는 주장은 마가복음

48) Ibid., 15.

49) J. S. Kloppenborg, "Isa 5:1-7 LXX and Mark 12:1, 9, Again," *Novum Testamentum* 46 (2004), 18.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비유가 칠십인역 이사야서 5:2의 맥락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앞에 제시된 클로펜보르그의 논문에 제시된 문헌들을 참조하라.

50) Lindemann, "Zur Gleinisisinterpretation," 236은 도마복음서에서 이사야서 5장에 대한 암시가 없는 것은 도마복음서 기록자의 구속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1) Hengel, "Gleichnis," 16-19.

12:1-12의 본문이 알레고리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예수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익숙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알레고리가 아닌 비유를 은유적으로 의도해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은 이미 구약 안에도 많은 은유적인 의미의 비유들이 존재하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전승되어 오던 비유들은 예수에게도 익숙한 것이었고, 마가복음의 기록에 대한 전승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이런 예수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재 형태의 마가복음의 본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⁵³⁾

위에서 언급했던 행엘의 주장의 문제점은 그가 제시하는 제논의 자료가 예수의 시대와는 약 280년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장했던 구약의 전승과 사회적인 상황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처럼 갈릴리 지역이 고대 세계의 봉건적인 환경에서 왕이나 국가에 공로를 세운 지배자들에게 하사된 영지이며, 그런 상황은 페르시아 지배부터 로마의 통치까지 계속 이어졌다. 고대 세계의 봉건 제도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는 수입의 원천이며, 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일정한 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우리의 본문과 관련하여 그런 상황은 헤롯 가문의 등장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래서 갈릴리의 토지는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원주민이 주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⁵⁴⁾ 그러므로 외국인 토지 주인은 그곳에 상주하지 않으면서도 소출의 일부를 세금처럼 받으므로 엄청난 수입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다.⁵⁵⁾ 이렇게 이 비유 안에는 신구약 중간기의 사회경제적인

52) Strack-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I* (München: C. H. Beck, 1978), 867-877 중 특히 869를 보라.

53) Hengel, "Gleichnis," 19.

54) 리처드 A. 호슬리, 『갈릴리.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김경미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27-139.

55) 마틴 행엘, 『신구약 중간사』, 임진수 역 (과주: 살림출판사, 2006), 47-63. 특히 50을 참조하라.

상황이 들어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 들(τελωιται)이라는 어휘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⁵⁶⁾ 외국인 지주들이 갈릴리 지역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지배하는 과정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는 몇몇 농부들의 반란처럼 여겨지 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마카비 반란이나 로마와 헤롯 가문에 대한 열심당원들의 저항과 같은 배경에도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서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⁵⁷⁾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도 예수의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회, 정치, 경제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해석해야 한다.

이미 예수의 언급에 등장하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비유와 연관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맘몬에 대한 비판(마 6:24; 눅 16:9-13),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막 12:13-17 와 평행 본문), Q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나오는 사회 비판도 당시의 상황을 담아내는 내용이다(눅 3:11-14과 평행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을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서 탐구하려고 제안 했던 예레미야스나 다드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처럼 이 비유에 나타나 는 농부들의 악행은 당시 소작인들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 하다. 그러나 예수나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라, 배척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신학적인 변론이었다. 더 나아가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선민 사상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유대교와 논쟁과 마가 공동체의 선교를 위한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신약성서가 형성되던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예수와 마가 복음 기록자의 신학적인 사상이 은유적인 함의를 지니게 되었고, 현재

56)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 나라』, 이정희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328.

57) M. Hengel, *The Zealots*, D. Smith trans. (Edinburgh: T&T Clark, 1997), 335.

의 형태로 전달되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4. 사회적 상황의 알레고리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는 알레고리적인 교회의 산물이라는 입장과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이 비유와 예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초대 기독교의 입장을 ‘알레고리화’의 입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루는 텍스트가 원래는 하나의 비유였던 것이 알레고리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또 다른 해석으로 발전하는 알레고리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다루는 비유가 도마복음을 포함하여 마태와 누가를 함께 비교해 보면 그 안에 기본적인 어휘의 일치로 나타나는 전승의 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도마복음의 동일한 비유가 마가의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유보하고 다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도마복음의 어록이 Q 자료와의 연관성에서 더 근원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실제적인 기록이나 필사 과정에 대한 시간적인 이해는 공관 복음서 이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⁵⁸⁾

앞에서 제시한 윌리허나 예레미아스, 다드 같이 비유 연구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연구자들의 논의는 이 비유가 과연 예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예수의 당시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고 그래서 예수의 말에 가장 가까울 수 있거나 예수에게

58) Lindemann, “Zur Gleinisinterpretation,” 237. 린데만은 그의 논문 237쪽 각주 111에서 도마복음서의 어록 66에 나오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관용어가 공관 복음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간상으로 도마복음서가 더 근원적이라는 가설을 수용하지 않는다.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비유 연구가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며, 역사적인 예수와의 관련성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관 복음서 안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 심판 예고, 논쟁과 같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들어 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11장에서 시작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된다(1-11).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시의 유월절 축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라는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으며, 그가 보여 주고 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12-14, 20-25), 성전 정화(15-19),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27-33)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위한 전제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마가복음 기록자의 신학적인 의도도 있지만, 예수가 보여주는 비유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에 대한 정황은 당시의 사회사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칠십인역 이사야서 5:2의 인용은 구약성서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은유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포도원과 관련되어 주인이 종들과 아들을 파견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주인과 아들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볼 때 종들은 예언자들이 되고, 아들은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도래를 준비하고 알리는 그의 아들로 해석되는 알레고리화가 일어났다.

이미 11장에서 27절에서 시작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권위에 대한 요구는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30절), 12:1 이하에서도 종들의 파송과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파송을 받은 종과 사랑하는 아들은 11:30에서 언급되는 세례 요한과 상응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비유에서 말하는 아들의 죽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라는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론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는 스스로 포도원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리자로 의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예수는 세례 요한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그와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했던 사람이며, 예수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전통에서 서 있지만,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배척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배척받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맥에서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도 예언자들과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의 운명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포도원 주인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포도원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가져오는 아들이 된다. 그러므로 12:1-12에 나오는 아들은 예언자들의 운명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예수 자신이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으로 그의 죽음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⁵⁹⁾

이렇게 이 비유의 시작은 근원적으로는 예수의 자의식을 토대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알레고리화 과정을 겪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비유의 원래 의도는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식했던 사건과 연결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 논쟁을 벌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후 마가복음이 편집되는 상황에서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알레고리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시편의 암시를 통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적인

59)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146.

알레고리화가 일어난 것이다.⁶⁰⁾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마가복음 12:1-12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의 두 가지 관점을 탐구해 보았다. 이 본문은 현재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이미 마가복음에 1:1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τὸ εὐαγγέλιο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표제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말하는 주체(Genitivus Subjectivus)가 되기도 하고, 선포 대상(Genitivus Objectivus)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은 이 연구에서 다루는 것처럼 알레고리적인 교회의 산물로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해석을 배제하고 역사적이고 사회사적인 해석만 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던 초대 기독교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우리는 이 연구의 두 가지 해석의 관점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더 나은 성경 해석을 위한 다양한 관점들과의 대화를 위한 시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다변화, 다문화, 다양화로 발전하는 현대의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함축적이면서도 본래 가지고 있던 의도에 귀를 기울이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0) Ibid., 147.

<주요어>

알레고리, 비유, 포도원, 농부, 도마복음, 사회학

<Key words>

allegory, parable, vineyard, farmer, gospel of Thomas, sociology

* 접수일 2014년 2월 18일, 수정일 2014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26일

참고문헌

- 게르트 타이센,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5.
- 김덕기, 『예수 비유의 새로운 지평』, 서울: 다산글방, 2001.
-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90
- 루돌프 볼트만, 『공관 복음서 전승사』,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리처드 A. 호슬리, 『갈릴리.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박경미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마틴 행엘, 『신구약중간사』, 임진수 역, 파주: 살림출판사, 2006.
- 버나드 브랜든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일산: 한국기독교 연구소, 2006.
- 베츠, H. D., 『갈라디아서』,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샌더스, E. P., 『예수운동과 하나님 나라』, 이정희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 예레미야스, J., 『예수의 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 유지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와 역사적 예수의 처형 이유. 마가복음 12: 1-12,” 구제홍, 김선정 외 지음, 『예수의 비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17-136.
- Alt, A., “Die Stätten des Wirkens Jesu in Galiläa,” *ZDPV* 68 (1949), 51-72.
- Black, M., “Die Gleichnisse als Allegorien,” W. Harnisch, ed., *Gleichnisse Jes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2, 262-280.
- Conzelmann, H. and Lindemann, A.,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Tübingen: J. C. B. Mohr, 1995.
- Dodd, C. H., *The Parable of the Kingdom*, rev.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 Greeven, H., *Synopse der drei ersten Evangelien mit Beigabe der johanneischen Paravellen*, Tübingen: J. C. B. Mohr, 1981.
- Gnilka, J.,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8,27-16,20)*, EKK II/2, Benziger/Neukirchner-Vluyn: Neukirchner Verlag, 1989.
- Hengel, M., “Das Gleichnis von den Weingärtnern Mc 12:1-12 im Lichte der

Zenon papyri und der rabbinischen Gleichnisse,” *ZNW* 59 (1968), 1-39.

Hengel, M., *The Zealots*, D. Smith, trans., Edinburgh: T&T Clark, 1997.

Iverson, K. R., “Jews, Gentiles, and the Kingdom of God: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in Narrative Perspective (Mark 12:1-12),” *Biblical Interpretation* 20 (2012) 305-335.

Jülicher, A., *Die Gleichnisreden Jes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Kloppenborg, J. S., “Egyptian Viticultural Practice and the Citation of Isa 5:1-7 in Mark 12:1-9,” *Novum Testamentum* 44 (2002), 134-159.

Kloppenborg, J. S., “Isa 5:1-7 LXX and Mark 12:1, 9, Again,” *Novum Testamentum* 46 (2004), 12-19.

Lindemann, A., “Zur Gleichnisinterpretation im Thomas-Evangelium,” *ZNW* 71 (1980), 214-243.

Linnemann, E., *Gleichnisse Jesu. Einführung und Ausleg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Mann, C. S., *Mark*, AncB,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86.

Strack-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I*, München: C. H. Beck, 1978.

http://www.gnosis.org/naghamm/gth_pat_rob.htm

<http://de.wikipedia.org/wiki/Allegorie>

<초록>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 해석의 두 관점 (막 12:1-12)

-알레고리와 사회적 상황-

임진수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예수 비유 연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가복음 12:1-12의 내용을 다룬다. 예수의 비유 해석은 주석 방법론의 양식사에 해당하는 연구 분야로 현재의 문학 형태가 존재했던 삶의 자리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렇게 양식사 연구의 초점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문헌의 형식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학적인 접근을 필요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문학 형식을 만들어낸 주인공의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주석가들의 논쟁은 예수의 비유를 다루면서 그 문학 형식이 예수 자신의 말(ipsissima verba)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역사적인 예수에게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기록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주석가들은 예수의 비유가 기독교나 교회론적인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역사적인 예수에게서 그 기원을 찾기보다는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가미된 교회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런 두 가지 논쟁점을 토대로 이 논문은 먼저 알레고리의 개념을 다룬다. 일차적으로 이 논문은 신약성서 안에서 알레고리에 대한 개념이 사용된 용례를 바울을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의는 윌리엄 이후 시작된 알레고리 논쟁과 비유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논쟁의 상황을 다루었다. 이런 논의를 한 후, 이 논문이 추구하는 예수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과정, 사회적 상황과 배경, 비유의 알레고

리화를 다루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은 이런 연구를 토대로 비유의 원래 화자였던 예수의 사상과 그것을 전달하는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논문이 다루는 알레고리와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두 가지 해석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예수의 비유에 대한 연구는 그 기원이 예수에게 소급되며 당시 세계의 삶의 정황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므로 예수의 사상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이렇게 비유 연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루는 마가복음 12:1-12에 적용해서 그에 대한 종합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된다.

<Abstract>

Two Hermeneutical Perspectives of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Mark 12:1-12): Allegory and Sociological Situation

Prof. Jinsu 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text Mark 12:1-12 that is open to dispute. The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Jesus's parables is about the *Sitz im Leben* where the literary form of the Jesus's parables was made. The study is the formcriticism in the exegesis of New Testament. The interest of formcriticism is focused on a social approach with many forms in New Testament, and related to the person who made the literary form.

In the exegesis, the scholars have two opinions. First, the para-

bles of Jesus have the form of his sayings that was from Jesus. The parables also represent the context in which Jesus lived and the parable was written. Second, the parable is not from Jesus and is originated from the early church. The parable was transformed into the christological and ecclesiological allegory.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 about Jesus's parables, the researchers insist that the parables should be from Jesus. Besides, the research reveals the idea of Jesus's Kingdom of God and the social situation in the time of Jesus. The differences of the two different opinions on Mark 12:1-12 allegory or Saying of Jesus are analyzed in this study.

